취업난 속 복지현장은 구인난

저임금 고노동 탓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 일손부족 심각

대부분 임시 취업후 이직위해 '거쳐가기' 수순

#여성 장애인 관련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광주시 북구의 한 복지관은 최근 이 사업의 실무를 맡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겨우 구한 인력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한시 근무 조건을 내걸어 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의 한 개인병원은 간호조무사를 구하는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 수습 기간을 거쳐 노련해질만 하면 다른 병원으로 이직해버리기 때문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간다고 하니 막을순 없지만 새로 사람을 뽑아야하고 공백기에는 대체인력을 써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만성적인 취업난 속에서도 복지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은 사회복지사·어린이집 교사·간호조무사 등에서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들은 임시 취업을 한 뒤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위해 '거쳐가기'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근무 인력 부족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대대적인 의료·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으로 인력 충원이 계속됐던 사회복지직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43명과 107명의 9급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을 선발했던 광주·전남의 경우 각각 891명과 1904명이 몰려 20.7대 1, 17.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공무원 시험 응시자 중 절반 이상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이들이 휴직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시험에 응시한 것이라는 게 복지관 등의 분석이다.

이들은 합격할 경우 곧바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업무 마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집 등 사립 교육시설의 교사나 영양사 등의 인력 시장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뜩이나 이직이 많은 곳인데, 좀 더 나은 조건을 찾아 가거나 근무를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이직을 준비하면서 업무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기 초나 특별활동이 몰려있는 기간에는 교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기관도 상당수다.

이계승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 팀장은 "어린이집 등 사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직자는 처음부터 눈높이를 높게 맞추지 말고,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수지 사진 희롱한 사이버 폭력

입간판 음란행위 전송

'홍어' 전라도 비하 논란

광주 출신으로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인 수지(18)의 사진 성희롱 내용이 온라인에 올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네티즌이 수지 트윗에 보낸 성추행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수지를 성적으로 희화화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사진은 수지의 입간판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담아 수지의 트위터로 입에 담지 못할 메시지와 함께 직접 전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사진을 전송한 트윗라인은 사진과 함께 전라도민을 비하하는 '홍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는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24일 "최근 수지를 성희롱하는 듯한 악의적인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온 뒤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됐다"며 "수지가 아직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인 만큼 간접적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JYP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원더걸스 멤버인 소희의 트위터에 음란성 글을 지속적으로 남긴 네티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 네티즌은 지난 11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문제의 사진을 올린 트위터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동료 폭행 순천시의원 사퇴하라"

시민·사회단체 등 비난 잇따라

동료의원을 폭행한 순천시의원〈본보 12월 24일자 6면 보도〉이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 시의회가 사과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태를 '사소한 시비'라고 밝혀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순천시의회 주윤식(52)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본인과 동료 의원들간 불미스런 사건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간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도시건설위원장 직을 사퇴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정원박람회 등 순천시 현안 문제 등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의회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남은 의원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의원직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순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준영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의원 3명 모두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으로, 단편적으로는 시의원 몇 명의 폭력 사태로 비치지만 총체적으로는 호남에서 일당독재를 해온 민주통합당의 문제"라며 "해당 의원들은 사퇴해야 마땅하며 당 차원에서도 엄중 징계해 호남에서 정치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천YMCA 신임숙 사무총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인 시의원들이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과 이익을 앞세워 예산안을 심사하고 비도덕적인 폭력 사태로까지 비화시킨 것은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다른 예산 심사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일벌백계를 주문했다. 한 시민은 "심야 시간에 시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20여분간 폭력을 행사한 것을 '사소한 시비'라고 대충 덮고 가려는 의회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대규모 단체미팅 이벤트인 '솔로대첩'이 2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예식장에서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성탄 전야 '광주 솔로대첩' 그저 그랬다

男 300명·女 100명 참가… 진행도 어색

24일 오후 3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예식장. 드레스 코드인 흰색과 빨간색으로 잔뜩 멋을 낸 20세 이상 '솔로' 400명이 모여들었다.

온라인에서 '솔로대첩'으로 알려진 이번 행사에는 여자친구가 없는 남성은 300명이나 참석한 반면 남자친구가 없는 여성 참가자는 100명만이 모습을 드러냈다. '솔로대첩'은 이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으며, 광주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협찬을 받아 실내에서 열렸다.

행사는 인원 통제 등을 이유로 40분간 지체되는 등 시작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예상보다 남성 참가 비율이 높았던 점도 문제였다. 스텝들은 성비를 이유로 남성 참석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행사 진행상의 문제점도 여러 곳에서 도출됐다. 행사 자원봉사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식상한' 게임을 반복하면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이 춤과 노래 등 장기자랑을 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한두 명의 참가자가 올라가는데 그쳐 진행자들이 머쓱해 할 정도였다. 일각에서는 준비가 미흡한데다 집단 맞선 프로그램 방식으로 진행돼 지나치게 상업성이 부각됐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2시간여의 행사가 끝난 뒤에는 40여 명이 커플이 됐지만, 성추행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과 소방대원 100여 명이 행사장 주위에 배치돼 공권력 낭비 논란도 일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새누리 돈봉투 의혹 2명 입건

장성경찰은 24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특보 임명장과 함께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백모(75)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임명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밥값을 낸 혐의로 박모(58)씨도 입건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원룸에 억대 짝퉁 명품 보관 판매

쌍나팔

○…수억원에 달하는 짝퉁 명품 상품을 원룸에 쌓아놓고 전문직 종사자들을 상대로 판매한 40대 여성이 경찰서행.

○…24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권모(49)씨는 지난 4월께부터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건물 원룸을 임대해 창고 용도로 사용하면서 가짜 명품 상표가 부착된 가방·구두·의류 등 1억5000여만원 상당을 보관·판매했다는 것.

○…경찰은 "권씨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들에게만 상품을 팔았고, 전화주문을 받아 퀵 서비스로 물건과 물건 대금을 교환하거나 자신의 승용차에 주문받은 가짜 가방 등을 싣고 다니면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해 교묘하게 단속의 눈을 피했다"고 설명.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예산 유용하고 미화원 급여 부풀리고

여수시, 청소대행업체 고소 예정

여수시의 청소를 대행하는 일부 업체들이 시가 지원하는 예산을 유용 또는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수시는 24일 "청소대행업체 4개사에 대해 최근 정기감사를 한 결과 일부 업체가 시 예산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혐의를 확인, 사법당국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문제 업체에 대해 감사를 연장하고 적발된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부당 사용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사법 당국에 고소할 예정이다.

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시 지원 예산 예금계좌에서 44차례에 걸쳐 10억70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청소대행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로 2300여만원을 불법 지출하기도 했다. B업체는 환경미화원을 사무실 경리업무 보조와 차량 정비사로 임의 전환한 뒤 인건비가 더 많은 환경미화원 급여기준을 적용해 매달 40여만~80여만원을 더 지급해 수년간 1억여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이 여수시의 분석이다.

한편 여수시는 4개 민간업체에 14년에서 최장 28년간 시 청소대행업무를 맡겨왔으나 장기 독점 등 특혜논란이 불거지자 2013년부터 여수시도시공사가 직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9월부터 업무 이관을 추진해왔다.

/여수=임문택기자 mtlim@

환상제주 겨울시즌 BIG HIT! 제주여행
3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상품기간 : 2012.09.01 ~ 2013.02.28 *버스패키지 계약금 50,000원
광주공항출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왕복 2박3일(일반호텔 5인1실기준) 1인 ₩229,000~
*최소인원 : 2명 (매일출발) *광주발 19:20 / 제주발 19:20 (광주착)
완도항출발 (블루나래) 주식회사 한일고속
왕복 2박3일(일반호텔 5인1실기준) 1인 ₩169,000~
*완도발 09:00~10:40 / 제주발 17:50~19:30
목포항출발 (씨스타크루즈) 씨월드고속훼리
왕복 2박3일(일반호텔 5인1실기준) 1인 ₩155,000~
*목포발 09:00~13:20 / 제주발 17:00~21:30
1일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 "환상제주" 피켓미팅 – 석식(개별식)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2일 호텔 조식 후 관광 – 아름다움과 행복을 주는 동백언덕 카멜리아힐 – 천지연폭포 – 석부작테마공원 중식(전복해물전골+전복회+옥돔구이) – 화순곶자왈 생태탐방숲길 트래킹 – 〈선택관광〉산방산유람선 미니어처박물관 소인국테마파크 & 옛날옛적에 – 더馬파크 공연 or 제주서커스월드 석식(개별식) – 호텔 체크인 및 자유시간
3일 호텔 조식 후 관광 – 탐라원(토산품점쇼핑) – 삼나무숲길 경유 〈선택관광〉매직아일랜드 or 라스베가스 매직타이거쇼 – 곶자왈 테마열차 에코랜드 테마파크 조랑말승마체험 – 중식(토종돼지불고기+쑥전+좁쌀막걸리) 천가지 아름다움이 있는 미천굴관광지구 일출랜드 성산일출봉의 아름다운 자태와 탁 트인 해안절경 섭지코지 종달리 해안도로 경유 – 해녀촌 – 농수산물 쇼핑 제주공항 도착 후 티켓팅 – 광주공항 도착
■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호텔료, 전용차량, 관광지입장료, 조/중식, 여행자보험
■ 공통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8월기준22,000원), 전 일정 석식, 기사/가이드 팁(1인 10,000원), 선택관광
■ 선택관광 : 산방산유람선(성인15,000원), 매직아일랜드(성인15,000원), 라스베가스 매직타이거쇼(성인20,000원)
특급호텔과 함께~ 겨울 특가여행!! 2박3일
*항공시간 – OZ8147 19:20분 광주출발/ OZ8148 19:20분 제주출발 기준
신라호텔 (~12월28일) + 2박2조식 포함, k5또는 동급 54시간 기준(신라 주중적용 : 일~수 출발)
◆항공/ 왕복항공(유류세별도) 주중 445,000원~ 주말 619,000원
◆선박/ 완도배 왕복 주중 389,000원~ 주말 488,000원
해비치리조트 (~12월28일) + 2박2조식 포함, k5또는 동급 54시간 기준
◆항공/ 왕복항공(유류세별도) 주중 445,000원~ 주말 599,000원
◆선박/ 완도배 왕복 주중 389,000원~ 주말 468,000원
◆선박/ 장흥배 왕복 (해비치 이용고객 식음료 10% 할인) 주중 405,000원~ 주말 468,000원
** 편의시설중 ... 놀멍 어린이 놀이방 무료 이용 가능
제주도 골프투어 - 항공/선박 골프 패키지 1박2일
■ 포함사항 : 왕복 항공료 (유류세 불포함) + 렌트카 33시간 + 비지니스호텔2인실 or 골프텔 18홀 + 18홀 그린피
■ 불포함사항 : 카트비 / 캐디팁 / 전일정 식대
※ 제주 모든 골프장 예약가능합니다. 견적 문의 주십시요!
(4인이상 1조 출발)
[명품2회] 테디밸리+블랙스톤 ◆항공/ 왕복항공(유류세별도) ₩405,000~
[명품2회] 테디밸리+세인트포 ◆항공/ 왕복항공(유류세별도) ₩385,000~
테디밸리+우리들CC ◆항공/ 왕복항공(유류세별도) ₩385,000~
[명품2회] 라온+블랙스톤 ◆항공/ 왕복항공(유류세별도) ₩413,000~
환상제주 Fantastic Jeju NO.1 제주여행전문랜드
여행사 파트너 모집 광주/전남 T.062-675-0064 담당 공지혜 대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27번지 금호종합금융 4층 | 제주 T.1600-4800 서울 T.02-6404-4708 부산 T.051-469-7030 대구 T.053-425-0747
환상제주 여행문의
하이센스여행사 350-6222
이유여행사 374-1881
메이투어 070-7093-0555
한별투어 956-0045
첨단/투어디자인 974-3050
무등파크여행사 384-7470
동구/다니엘여행사 227-7422
고고투어 603-4416
관광사업등록 제 74호 / 통신판매업신고증 제 2009-65100059-30-2-00030호